



일본의 표준생명표 개정

박정희 선임연구원

최근 일본 보험계리사회는 생명보험회사의 경험사망률 및 국민사망률 개선 추세에 따라 생명보험의 표준생명표를 11년 만에 개정함.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개정된 표준생명표를 참고해 2018년 4월부터 정기보험 사망보험료를 5~10%, 종신보험 사망보험료는 5% 정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반면 일본사회의 수명 연장이 의료비용 증가 원인이 됨에 따라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 최근 일본 보험계리사회(日本アクチュアリー会)는 생명보험회사의 경험사망률 및 국민사망률 개선 추세에 따라 생명보험의 표준생명표 개정안을 작성·공표함.¹⁾

- 표준생명표는 「보험업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 보험계리사회가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2017년 3월 ‘표준사망률 자문위원회’를 거쳐 11년 만에 개정된 것임.
 - 표준생명표는 일본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경험분석 작업에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초통계를 제공하여 산출되며 이를 일본 계리사회가 승인함.
- 생명보험회사는 개정된 표준생명표를 참고해 2018년 4월부터 사망보장 주력상품에 대해 보험료 전면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
 - 각 보험회사는 자사요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생명표에 근거해 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표준생명표 수준²⁾에서 위험률을 결정함.
 -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1) 일본 계리사회는 1899년 설립된 공익 사단법인으로 표준사망률의 적정성을 확인 후 승인하여 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표준사망률은 2007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 중임.

2) 이는 「보험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계수로 이번 사망률 개선 상황 등을 감안하여 표준생명표 개정안을 작성(사망보험 기초데이터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0년을 제외한 2008년, 2009년, 2011년의 3개년이며, 의료보험은 제21회 국민생명표를 참조).

■ 개정된 표준생명표로 인해 일본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10년 정기보험의 사망보험료는 내년 4월부터 5~10%, 종신보험 사망보험료는 5%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 40세 남성의 사망률은 2007년 1,000명 가운데 1.48명에서 1.18명으로, 40세 여성도 0.98명에서 0.88명으로 각각 20.3%, 10.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자살자가 6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 전 세대 평균 사망률은 남성이 2007년 대비 24.4%, 여성은 15.0% 정도 낮아졌음.³⁾
 - 평균 수명도 남성이 78.24세에서 80.77세, 여성이 84.94세에서 86.56세로 약 1.62~2.53세 정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60~70대보다 30~40대의 사망률이 더 개선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 반면, 수명 연장이 의료비용 증가의 원인이 됨에 따라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하게 될 것임.

- 일본의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6.6%로 우리나라의 13.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는데, 이 같은 고령화 심화로 질병·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가 급격히 증가함.⁴⁾
 - 일본의 의료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제3보험'으로 2015년도 신규 개인보험 계약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계약 건수도 5년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번 개정안으로 종신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평균 5% 정도 인상되고 연금보험도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하락 영향까지 더해져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제3보험에 적용되는 표준생명표에 대해 기존 표준생명표 2007을 계속 적용한다면 건전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임. [kiri](#)

3) 연령조정사망률은 현재 남성의 경우 5.70%(100,000명당 570명이 사망)에서 개정안이 4.31%, 여성이 3.20%에서 2.72%로 하락함.

4) 이처럼 일본 보험회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다양한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